개요

입장료 무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수각(성의 중심부인 아성의 중앙에, 3층 또는 5층으로 제일 높게 만든 망루)은 없지만 돌담이 훌륭하며 보존 상태도 좋습니다. 봄에는 매화와 벚꽃, 등꽃이 활짝 피는 모습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나무와 노랗게 물든 은행잎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 성터는 국가지정 사적이며 일본이 선정한 100 명성 중의 하나입니다. (일본100명성 스탬프는 마쓰사카성터 안에 있는 마쓰사카시역사민족자료관에 있습니다.)

역사

마쓰사카성은 1588 년에 가모우지사토가 축성했습니다.
우지사토는 당시 가장 천하 통일에 가까웠던 오다노부나가와 도요토미히데요시를 섬기던 무장(武將)이었습니다. 그 무렵 일본은 수많은 영지로 분단되면서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마쓰사카는 우지사토가 마쓰사카성을 축성하면서 세워진 마을입니다.
매년 11월 3일에는 우지사토를 기리는 “우지사토 축제”가 열립니다. 갑주 등의 전통 의상으로 분장하여 3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하는 성대한 축제입니다.

1556	우지사토, 지금의 시가현에서 태어남. 아버지는 나카노성 성주(城主).
1568	그의 아버지는 오다노부나가를 섬김. 우지사토는 인질로 오다 댁에 들어감.
1569	우지사토는 14 살 때 첫 출전을 하여 빛나는 전공을 세움. 노부나가의 딸과 결혼.
1582	노부나가는 모반에 의해 살해당함. 우지사토는 노부나가 가족을 나카노 성에 숨김. 이 이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섬김.
1584	히데요시의 명으로 우지사토는 마쓰가시마성에 입성. 지금의 미에현에 더 큰 영도를 얻음.
1585	우지사토는 마쓰가시마성에서 4 키로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마쓰사카성을 축성하기 시작함.
1588	불과 3 년만에 마쓰사카성에 입성. 우지사토는 마쓰가시마에서 사람들을 이동시켜 새로운 마을을 형성.
1590	히데요시의 명으로 우지사토는 지금의 후쿠시마 형으로 영지를 옮김.
1595	우지사토는 병으로 인해 40세 때 사망.

마쓰사카성의 기능과 외관은 시대와 함께 변해갔습니다. 우지사토 이후에는 두 명의 성주(城主)가 들어왔습니다. 1619년에는 기슈번(紀州藩)의 일부가 되어 마쓰사카성에 성주가 없어지면서 기슈번(紀州藩)의 관인이 주재하여 집무를 행했습니다. 1644년에 큰 바람으로 인해 천수각이 무너졌습니다. 1881년, 마쓰사카 성터는 "마쓰사카 공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1872년에 촬영된 것이며 이 당시에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치도

소요시간 20~30분.

니노마루 (二ノ丸)	소중한 손님을 마주하거나 집무를 행하기 위한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은 남쪽에 큰 등나무 덩굴의 시렁이 있으며 북쪽에는 역사민족자료관이 있습니다.
혼마루(本丸) 하층부	건물의 북, 동, 남쪽 각각 모서리에 있는 탑에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타이마루(きたい丸)	건물의 모든 모서리에는 망을 보는 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립이나 수목이 우거지고 있습니다.
혼마루(本丸) 상층부	성의 최상층부에 있으며 천수각(天守閣)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북쪽과 동쪽 각각 모서리에는 망을 보는 탑이 있으며, 사람들이 자고 일어날 수 있는 넓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인쿄마루(隠居丸)	도구 창고와 쌀 창고, 보물 창고가 있었습니다.

돌담

마쓰사카 성터를 산책하면서 돌담에 주목해보세요. 이 돌담은 시대마다 다른 기법으로 수복되어 왔으며 어느 부분이 새롭고 어느 부분이 오래된 것인지 돌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꼭 재미있는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즈라즈미 (野面積み)

마쓰사카성이 지어진 당시 사용하던 방법. 주변 강가에서 가져온 돌을 가공하지 않고 쌓았습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기법입니다.

-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
- 돌과 돌 사이의 틈이 넓음
- 무질서하게 쌓임

우치코미하기 (打込みハギ) 이게

비교적으로 새로운 기법. 돌을 쌓기 쉽게 표면을 끌로 거칠게 가공해서 모양을 다듬은 뒤에 쌓는 방법. 돌과 돌 사이의 틈이 좁으며 수복된 곳에서 이 기법을 볼 수 있습니다.

- 가공하지 않은 돌보다 각진 형태
- 틈이 좁다
- 끌 등의 도구를 사용한 흔적

산기즈미 (算木積み)

돌담 모서리 부분에 사용하는 공법이며 장방형 모양을 하고 있는 돌을 긴 쪽과 짧은 쪽을 교차하여 쌓아 올립니다. 이 기법은 수복된 곳에 보입니다.

볼거리

① 돌을 쪼갠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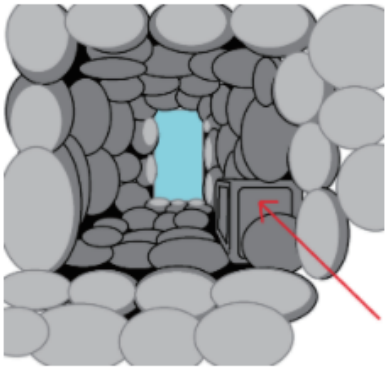
쐐기를 사용해서 큰 돌을 쪼갠 흔적이 남아 있으며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② 리본 모양의 구멍

돌과 돌을 합치기 위해서 걸쇠 같은 것으로 박은 흔적이 보입니다.

③ 좁은 틈 안에 있는 특이한 돌

양쪽에서 보면 어떤 구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부에서 좁은 틈 안을 들여다보면, 오른 쪽에는 사각형의 돌이 있는데 이것은 사원(寺院)에 있던 석탑을 재활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④ 가장 오래된 돌담

이 부분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로 만들어져 있으며 특히 모퉁이를 보면 원시적인 방법으로 돌이 쌓아져 있기에 가장 오래된 돌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상부는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⑤ 석관의 뚜껑

천수각의 토대가 되는 부분에 고분 시대에 만든 석관의 뚜껑이 재활용되었습니다. 마쓰사카성은 3 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서 만들었어야 하기 때문에 돌이 모자라서 사용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⑥ 돌을 쪼개려고 한 흔적

쐐기로 돌을 쪼개려고 했으나 포기하고 그대로 쓴 모양입니다.